



추천 섹터

반도체

- AI 모델이 학습을 넘어 추론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AI Capex 내 메모리반도체의 BoM Cost 비중은 지속 확대될 전망
- 빅테크들이 직면한 연산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BM3E 및 차세대 HBM4/HBM4e의 대량 도입 및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 가격 인상 사이클은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 SF2 공정 수율 안정화와 테일러 펌 가동 가시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테크 고객 확보와 AI 터키솔루션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삼성 파운드리 및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할 전망

전력기기

- 신규수주, 수주잔고, 북미향 비중 등 펀더멘털 훼손 신호는 제한적
- 하반기 전력기기 업종의 핵심은 AI 전력 수요가 국내 업체의 신규수주와 EPS 상향으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 2026년 신규수주는 기존 회사 가이던스를 상회할 가능성 높음



국내 추천종목

반도체

삼성전자

-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2027~2028년에도 타이트한 공급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을 주목
- 시장은 신규 증설과 HBM 관련 노이즈로 인한 2028년 피크아웃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HBM의 범용 DRAM 생산능력 잠식과 AI 추론 확산에 따른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감안하면 공급 제약의 해소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전기전자

삼성전기

- 커패시터 추가 수주 및 가격 인상 기대 등 MLCC 관련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여전히 유호
- 기판 중심의 선수금 기반 대규모 CapEx가 중장기 성장 사이클을 한층 강화
- 동사를 둘러싼 사업 환경은 주요 전기전자 업체 중 여전히 최상위 수준

반도체

SK하이닉스

- AI 추론 확산과 HBM의 범용 DRAM 생산능력 잠식으로 2027~2028년에도 타이트한 메모리 공급 지속 전망
- 공급자 우위의 HBM 협상력과 서버 DRAM·기업용 SSD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NAND는 QLC 기반의 고용량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급 개선 지속 예상

전력기기

LS ELECTRIC

- 2Q26 매출액 1조 5,770억원(YoY+32.2%), 영업이익 1,785억원(YoY+64.4% OPM 11.3%)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 신규수주 가이던스를 6.0~6.5조원으로 상향
- 배전반은 초고압변압기 대비 납기가 짧기에 매출 전환 속도가 빠름. 2Q 수주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하반기 실적에 반영되며 현재의 수주 강도는 '27년 실적 성장까지 뒷받침할 전망

해외 추천종목

반도체

CRDO

- 구리 및 광 기반 인터커넥트 제품 제조 업체. 자사 브랜드 ZeroFlap 구리케이블 및 광트랜시버가 주력 제품
- 동사 연결 솔루션은 이더넷, PCIe, UALink 포괄, 최근 메모리 대역폭 및 밀도를 10배 이상 제고한 Weaver 발표

전기전자

SANM

- PCB 기판 조립 및 테스트, 광학 및 RF 제조 서비스, 멀티칩 패키징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OEM 업체
- 최근 AMD로부터 ZT Systems 인수, AMD의 Heilos 랙스케일 플랫폼 내 전력/냉각 시스템 우선 공급 파트너